

# 제3회 덕성 글쓰기 공모전 수상작

대상	이세라		
최우수상	김가현	우수상	김나연
최우수상	이지현	우수상	김혜민
우수상	강경주	우수상	이다솜
우수상	강수민	우수상	채수빈

주최·주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통역량개발센터

# 목차

1. <대상> 사랑하는 통학러들에게. 이세라 .....	1
2. <최우수상> 카운트다운 내 인생. 김가현 .....	4
3. <최우수상> 성취에 목매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지현 .....	8
4. <우수상> 영어영문학도로 살아남기. 강경주 .....	12
5. <우수상> 여성에게는 언어가 필요하다. 강수민 .....	16
6. <우수상> 전교 꼴등의 인생 유랑기. 김나연 .....	20
7. <우수상> 3의 굴레, 삶의 굴레. 김혜민 .....	23
8. <우수상> 영화가 군주론을 만났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다. 이다솜 .....	27
9. <우수상>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 채수빈 .....	33

## < 대상 >

### 사랑하는 통학러들에게

유아교육과 20160750 이세라

TO. 사랑하는 통학러들에게

나는 스스로에게 '지하철 여행가'라는 이름을 붙이곤 했다. 친구들이 뭐하냐고 물어 보면 '지하철 여행 중'이라 답했다. 긴긴 통학길을 버티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물론 쉽진 않다.

나의 여행길을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하다. 5호선의 끝인 마천역에서 탑승해서 19개의 정류장을 거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8분 (벌써 지친다). 이후 4호선으로 갈아타서 '수유역'까지 가는 시간은 20분. 수유역에 내려 덕성여자대학교 앞에 가는 '도봉 02번' 버스를 20분가량 더 타고 가면 비로소 학교 후문에 도착한다. 여기서 강의실까지 가는 시간 10분,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 10분 까지 총 98분 정도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각 한번 없이' '4년'을 해온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성취라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행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밀폐된 지하철 칸 안에서 꽤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만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뜻과 같다. 만나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마주하게 되는 감정도 많기 마련.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내 안의 다양한 인격을 보게 된다. 하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내 앞에 섰다.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서 가는 내내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았다.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나는 그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어제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예정인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행운을 내어주고 싶었다. 그 청년은 자리에 앉아 눈 한번 뜨지 못하고 자면서 갔다. 나에게 이런 따스한 면이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그날의 나는 천사였음이 분명하다. 매일매일 이런 천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짝벌남 아저씨 때문에 입 모양으로 육두문자를 날리기도 하고, 일부러 내 앞에서 비키라는 듯이 서 있던 할머니가 너무 미워서 자는 척했던 날도 있다. 고등학생 손자를 둔 할아버지들이랑 대학입시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며 간 날도 있고, 재채기를 계속하는 나에게 휴지를 건네준 언니도 있었고 모델처럼 잘생긴 사람을 보면 설레기도 했었다. 문이 닫히는 지하철에 무리해서 타다가 가방이 낀 채로 출발한 적도 있었다. SNS 스타가 될 뻔했다.

이렇게 지하철에 오랜 시간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내가 얻은 건 크게 두 가지.  
**‘그러려니’ 와 ‘그럴 수 있지’**

멋진 말로 바꾸자면 ‘여유’이다. 사실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우리가 사회에 내던져 졌을 때 만나게 될 별별 사람들에 대한 면역을 기른 달까. 통학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지하철에 몸을 싣기를 바란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이다.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 사회에 나가면 별별 미친 사람도 많아. 하지만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란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뼈로 느꼈다. 앞서 말했듯 지하철에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성격을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생각하면 같은 지하철을 탄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들도 힘들겠지. 지쳐있겠지. 그들도 나와 같겠지. 지금 보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본질을 단정 짓지 말아야지.

조금은 내가 의연하고 유연해진 듯하다.

하지만 사람들을 관찰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때는 지하철에 있는 그 누구도 쳐다보기 싫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책이었다. 사실 지하철에서 찾을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는 게 참 한정적이다. 그나마 역동적인 건 뜨개질 정도. 나는 마음의 양식이라도 쌓아보고자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하필 「정의란 무엇인가」. 지하철 안에서 정의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눈 떠보니 학교였다. 걸뭇을 빼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연애소설들을 빌려보니 그나마 볼만 했던 것 같다. 절절한 사랑이야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눈물 흘리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 이후에는 소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서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눈떠보니 학교일 때도 적진 않았다. 통학 시간이 단축된 것 같은 마법.

그렇게 4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지하철에서 읽은 책이 50권은 넘는 것 같아 뿌듯하다. 남들은 일 년에 100권씩도 읽는다고 하던데 난 원체 독서에 흥미가 없어 일 년에 세 권 읽기도 벅찼다. 나에게는 큰 보람이고 성취이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나에게 책 읽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대학 시절 내내 10권도 못 읽고 졸업했을지도 모르겠다. 독서의 중요성은 대학생이라면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스러운 통학러들은 독서왕이 되어보자. 막간을 이용해 지하철에서 읽기 좋은 책 TOP3를 추천하자면 김훈의 「칼의 노래」, 기욤 뫼소의 「파리의 아파트」,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있다. 워낙 유명한 책들이라 줄거리는 생략하고 사실 통학러에게 어울리는 책이란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겁지 않아야 한다. 언제 앉게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은 그냥 짐이다. 가벼운 책 한 권과 물 한 병(대중교통은 대체로 건조하다)만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냥 통학러가 아니라 그 길 속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가인 것이다.

덕성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것들은 무수하여 나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

도, 만약 내 편지를 후배들이 읽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 그대들에게 찌든 삶과 피로만 주는 것은 아니라 이야기해주고 싶다. 학교 위치를 옮길 수는 없으니 내 마음을 옮기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것 또한 덕성이 그대들에게 건네준 것이다.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지하철(또는 버스)에서 자신을 만나보고 한층 더 유연해지고 한층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어른들은 인생이 곧 여행이라 말한다. 나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하는 중이라 믿는다.

FROM. 통학러 이세라

## < 최우수상 >

### 카운트다운 내 인생

정치외교학과 20190666 김가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유별났다. 갓난아이인데도 머리숱이 다 자라서 났고 심지어 손발톱도 다 자라서 났다. 그리고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인지도 모른 채 그 익숙한 목소리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뿐이어서,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의사들조차도 내가 죽은 줄 알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2000년 4월 7일, 마치 하늘의 축복이 내리듯 계절과 맞지 않게 보슬보슬 눈 내리는 그날 'blessed'라는 의미의 Benita라는 이름의 내가 태어났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바로 인큐베이터로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무려 일주일을 더 배 속에 있었으나,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4kg로 평균에 한참 못 미쳤는데, 정상치로 따지자면 겨우 10퍼센트였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작지만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고 나는 엄마 품속에서 첫날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나서인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말을 떼고 일찍 걸을 수 있었다. 내가 말한 첫 번째 한국어는 9개월 때, 명사가 아닌 동사 "다했다"와 "끝났다"이고, 첫 번째 영어는 13개월 때 "Oh My God"이었으며, 10개월이 된 후로는 아빠 손을 잡고 드넓은 백화점을 주말마다 탐방하는 기저귀 찬 어린 탐험가로 살아 늘 종아리에 알이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알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치마와는 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

초년 6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소풍이나 현장 체험 학습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만큼 체험이 중요한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체험 활동은 내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또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졌다. 그해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 연극, 영화들과 각종 이벤트들은 시험 기간이랑 상관없이 거의 다 보았고, 모든 권장 도서들은 거의 다 읽어서 내겐 문화적으로 절대 뒤쳐지지는 않는다는 자부심이 늘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4차원이라고 불렀다. 일례로 유치원 다닐 때 한 번은 선생님이 흰색 점토로 얼굴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사실 주

어진 과제는 평면적인 반죽에 콩을 붙여 만드는 것이었는데 나 혼자서 점토를 굴려 입체적인 얼굴 모양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초·중학생 때 창의경진대회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토론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36회 삼성당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서 특상을 받아 어린이동아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을 때였고, 그때 받은 상장은 여전히 할머니 댁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어 가족 모두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또 제1,2회 전국 에듀팟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교육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거액의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무려 17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과학반 회장으로 6개월 동안 '독생독사(毒生毒死)' 프로젝트를 이끌어 마무리한 경험은 실로 흥분되는 순간들이 아닐 수 없었으며, 6년 동안의 음악봉사 활동으로 충남교육감 표창장을 받은 것도 아주 소중한 기억들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수상 경력이 고등학교 때에도 계속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나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사실 좀 다니긴 했다. 중간고사 시작 전에 자퇴했으니, 한 달 조금 넘게 다닌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 상을 안 받은 건 아니다. 지리 올림피아드와 진로계획서 등 한 달 좀 넘게 다녔는데 상을 4개나 받았다. 교감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을 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나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상위권 학생이 왜 굳이 힘든 길로 가려는지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일단은 입학식 때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입학식 날 충남교육감이 오셔서 21세기의 인재는 문학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창의적 인재라는 축사를 하셨지만, 진짜 문학과 음악을 사랑해서 충청남도 독서골든벨과 음악경연대회를 학교 대표로 휩쓸었던 나는 성적으로만 받는 입학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들어간 학교에서 한 달 내내 교무실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알아본 소식으로는 그나마 나의 능력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골든벨 대회들이 다 사라졌다는 소식들이었다. 동아리 활동이 많다고 하는데 1학년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몇 개 없다는 점과,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참여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교내 대회는 거의 다 성적이 4퍼센트 이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준다는 점 등이 고등학교에 대한 무한 회의를 가져다주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보다 어울리는 나였지만, 성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할 때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겨우 상위 10퍼센트였기에 희망이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과서나 주야장천 외워대는 좀비나 로봇처럼 사는 3년은 끔찍해 보였고, 독학해서 수능으로도 좋은 학교는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학교를 나오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했다. 몽마르트 언덕 위에서 피카소와 고갱의 삶의 흔적을 좇거나, 세느강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거나, 런던 피카디리역에서 내려 저지보이스 뮤지컬을 보거나, 템즈강변을 걸으며 야경을 보다가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을 보거나, 진시황릉과 병마용의 거대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권력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내 자신과 인간의 인생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외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학을 가기 위해 딱 세 달 준비했다. 워낙에 자유로운 성격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친 듯이 암기하는 입시제도에 적응이 잘 안되어서 효율이 완전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염원인 인서울 대학 중 하나인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하였다. 정시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0퍼센트 인 학교이다.

나는 또 올해로 10년차 바이올린 수련생이 되었다. 아산시 음악 경연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여 매회 상을 받을 만큼 음악적인 감도 있는 편이고, 비록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랄로, 브루흐, 비엔나브스키, 차이코프스키 등 유명 작곡가들의 콘체르토를 연주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7년 동안 천안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멤버였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재능을 살려서 초록 우산 재단 산하 드림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교육 봉사를 했다.

이 바이올린 봉사는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El sistema)'를 모델로 삼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멘토가 되어서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목표로 시작하였는데, 결국 희선이와 유진이를 가르치던 시간들이 지금의 NGO에서 일하겠다는 내 꿈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음악의 빛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과 함께 자존감도 향상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찾아볼수록, 관심이 더 많아지는 나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나는 3년째 NGO, 많은 NGO 단체 중 특히 유니세프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중학 시절 꿈인 영화감독도 NGO활동의 프로모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 세계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행정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즉, 세계적으로 빈곤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내 손으로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꿈의 도약을 위해서 나는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고,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강북구 청소년 수련원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정서 멘토이고,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챔버양상블단원이며, 교내 굿네이버스 소속 봉사 동아리 '도담도담'과 학과 내 국제정치학 연구학회인 '목사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스무 살의 대학 새내기이다.

나는 불과 2.4kg인 10퍼센트의 몸무게로 태어나서, 10퍼센트의 성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마무리하고, 국내 10퍼센트의 학교에 들어온 10년차 바이올린 연습생으로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도 많지만, 지금부터가 진정한 인생을 위한 준비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검정고시 출신의 김가현이다. 비록 늘 10퍼센트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는 나였지만, 기억하시라. 나사 우주왕복선을 비롯해 새해를 시작하는 등 모든 것의 카운트다운은 바로 10부터이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도 10부터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것으로, 엄청난 결과물로 발사되어 세계에 밝은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의 카운트다운은 덕성여대에서 반짝이며 시작되었다.

## < 최우수상 >

### 성취에 목매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외교학과 20180688 이지현

#### #1 맹목적인 마라톤

“대학 입학하고도 놀 생각하지 마.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주 듣던 말이다. 실제로 입학하고 보니 마냥 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어떤 활동을 해도, 어떤 공부를 해도 즐겁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압박감만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나는 학교 가기가 싫어졌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중학교 시절, 어떤 선생님이 공부에 지친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선생님은 “너희는 왜 공부하니?”라고 물었고 우리들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왜 좋은 대학에 가려 하는지 물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라고 대답했고, 그것은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너희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라고 결론 내렸다. 인간에게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달려야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진리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나에게 대학은 맹목적인 목표였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자’는 결심으로 그동안을 살았다. 정작 그 결심 속에 ‘나’는 없었다.

#### #2 나를 잃어버린 나

덕성여자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한 쾌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크게만 느껴졌던 좋은 대학이라는 목적은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멸되었다. 허무감이 밀려왔다. 입학 후 1년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목적지 없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었다. 사실 내 노력의 원동력은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뭐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말이다. 내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때는 올백을 받으려고, 중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려고, 고등학교 때는 1등급을 받으려고. 그렇다면 대학생이 된 지금은 왜 달리고 있는 걸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인정받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나는 끝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걸까? 나의 모든 노력과 목표 속에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걸까?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 #2 의심에서 성취까지

그동안 나는 자신을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 '글 잘 쓰는 사람', '발표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라 믿었다. 맡았던 직책이나 활동들도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타자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필자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그러다 보니 거만해지기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쯤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20살이 되었던 한 해 동안은, 모두가 선배였다. 챙김 받는 것보다 챙기는 것이 익숙했기에 '후배', '새내기'라는 자리가 낯설었다. 그러나 챙김을 받는 경험은 나로 하여금 한없이 부족하고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고등학생 때 늘 해왔던 것처럼 학생회, 학회, 교내 신문사 활동까지 맡아가며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나는 누군가를 챙기는 것에 서툴며,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주입하는 융통성 없는 리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또한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내 글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의 인정과 칭찬들은 또래에 비해 작문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었지, 결코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작문 실력이 괜찮다고 해도 지식이 현저히 부족했기에, 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믿었던 발표 능력조차도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과 오랜 시간 공부해온 선배들 앞에서 발표하려니 두려웠다. 발표할 때 긴장한 것이 티가 나지 않을 뿐 내용이나 전달력이 좋지 않았다. 이처럼 열심히 생각해보니, 나의 특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그저 타자들의 칭찬으로 비롯된 헛된 믿음 체계일 뿐이라고 느껴졌다. 필자의 꿈은 오랜 시간 '기자'였다. 그것이 잘 어울린다는 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됐다. 그 후로 별 의심 없이 '내 꿈은 기자'라고만 생각하며, 그대로 직진했다. 그러나 교내 신문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결국은 장래희망조차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품었던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큰 허무감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생각까지 도달했을 때, 절망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가?

이처럼 나에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2학년이 되고 나는 어느새 학회장,

학과 내 학생회 홍보부장이 되어있었다. 또다시 융통성 없는 리더가 될까 봐 수많은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성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과 같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후배님들께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켰다. 학회원들, 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힘쓰고 사랑으로 품으려 노력했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점차 버리게 되면서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었다. 하지만 왕복 4시간 거리를 통학하면서 학업과 학과 일을 모두 해내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감이 더욱 커졌다. 여전히 내가 대학에 온 이유, 삶의 이유,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억지로 나를 가동한다고 해도 뿌듯하거나 보람 되지 않았다.

대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의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루의 절반 이상 그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정신의학과 진료를 권했고, 나는 병원에 가서 만성적인 중증 우울증 처방을 받았다. 의사는 나에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치고 특이하게도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칭찬해주셨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 삶에서의 행복감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의 물음에 답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나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타자의 칭찬과 판단으로부터 세워진 것에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들, 선생님 등등 '나'를 만들어준 주체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속에 나는 없었다. 물론 그들의 칭찬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을 터다. 그러나 적어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나'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그것을 타자의 시선을 통해 정립하면 안 된다. '나'는 오직 나만이 만들어나간다. 정체성의 기초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방황하게 되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본인에게서부터 확실한 믿음 체계를 세워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심각한 회의주의적 태도는 본래 잘 하던 일에서도 자신감을 잃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물음을 던져라. 우울해지거나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낼 때, 비로소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 자신에 대해 앞으로부터 더 발전할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사실 이것은 40대, 50대가 되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 사는가'하는 문제는 가

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물음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다. 21세의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궁금했던 적이 없으나 이제는 다르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이 꼭 내가 대학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도 나는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다. 또한 내가 성취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덕성여대에 입학한 것도, 학회장이 된 것도, 홍보부장이 된 것도 아니다. 그저 내 존재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내가 성취한 것들이다.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성취한 것들이 앞으로의 성취도 이끌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성찰에서부터 성취가 시작된다.

## < 우수상 >

### 영어영문학도로 살아남기

영어영문과 20180326 강경주

영어영문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와버렸어.” 나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새내기 시절에는 이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학기를 거듭하며 전공에 꾸준히 애정을 쏟아붓고, 영어의 ‘영’ 자까지는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므로 이 글을 쓴다. 영어영문학도로 살아남으려는 나의 노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덕성에 정말 입학하고 싶었던 나는 당시 입시사이트에서 안정적인 정시합격을 제시한 영문과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입시사이트는 좋았지만 입학 전 커리큘럼을 보고 문득 걱정이 들었다. ‘초급영작문화화? 영어이해의 기초? 영미산문? 이게 뭐지...? 나 수능영어밖에 모르는데...?’ 시험용 영어만을 배운 나에게 1학년 교과목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영문과면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영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학생도 있을 터라 내심 두려웠다. 두려움에는 영어에 대한 애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처럼 영어를 수동적으로 배운 나였지만 그런 내게는 어떻게든 영어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부모님이 계셨다. 부모님은 어려운 가정형편상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기술직으로 일하셨다. 두 분은 우리 자매를 낳고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삼촌에게 영어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영어인풋을 늘리라는 조언에 따라 아빠는 빙뱅뽀 영어비디오 전편을 사다주셨고 엄마는 늘 우리 자매와 디즈니 영화를 자막 없이 시청했다. 그러나 자라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영어는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영어를 곧잘 따라 한 이야기를 들으며, 청소년기의 나는 조금이나마 두 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꾀수를 썼다. 나름대로 발음을 연구했고 학교 또는 학원에 계시던 원어민 선생님께 무작정 대화를 걸어 원어민적인 몸짓을 따라 했다. 위와 같은 시도는 내신, 수능을 위한 영어수업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다닌 나는 내신성적이 엉망이었다. 이도저도 아닌 나에게 그나마 잘 나오는 영어성적은 내 자존심이었다. 영문과에 진학함으로써 내 자존심이 한없이 몽그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고민 끝에 타지에 사는 친언니를 찾아갔다. 언니는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1년 동안 오페어<sup>1)</sup>로 미국에 거주하며 그곳 대학부설기관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다. 언니와 더

---

1)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듬더듬 영어로 대화하며 개강하지도 않은 영어회화 수업을 대비했다. 결론적으로 언니표 속성 영어 과외는 빛을 발휘했다. 초영작1에서는 비슷한 영어실력을 지닌 사람들로 시험조가 편성되었는데 나는 현직 영어학원 선생님이로 근무하는 선배, 호주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와 같은 조가 되었다. 언니가 가르쳐 준 원어민적인 표현 몇 가지로 얘기한 걸 교수님이 듣고 결정하신 것 같았다. 내 진짜 실력과 별개로 영어 내공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니, 한마디로 큰일이었다.

당시 나는 리스닝과 스피킹 간극이 심각했다. 리스닝은 곧잘 했지만 스피킹은 그렇지 못했다. 하등한 스피킹 실력을 숨기기 위해 나는 대화를 주도하기보다 가급적 맞장구를 많이 치며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는 주제가 나오면 입을 많이 열어 점수를 얻었고 수업시간에는 최대한 교수님과 눈을 맞추며 열성적인 태도를 어필했다. 초영작1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한 덕분에 어찌어찌 넘어갔으나 기본 영어 수업은 달랐다. 원어민 교수님 앞에서 혼자 말해야 하는 기본영어 시험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했다. 쉬운 주제임에도 잘 말하지 못해 정적이 흘렀고 스피킹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할 말이 영어로 떠올라 기속사로 돌아오는 내내 후회했다.

총강 이후 두 과목 모두 A+을 받았으나 왠지 이 점수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실력이 아니라 단지 성실했던 태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위로점수 같았다. 이러한 자격지심 때문에 1학년 2학기 초영작2 수업에는 설렁설렁 참여했다. (심화영어는 라이팅 위주였고 교수님이 정말 재밌는 분이랄까 할만했다) 대신 3학년 전공강의인 영문법특강을 수강했다. 초영작2를 대신하여 영어학적 갈망을 채워줄 수업이 필요했고, '2학년부터 영문학을 시작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문사철을 좋아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그래서 동기들이 차관에서 영미산문을 들을 때 나는 대강의동에서 영문법특강을 들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 중 1학년은 나 혼자였다. 홀로 수업을 들으니 잠깐이라도 흐름을 놓치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 더 열심히 듣게 되었다. 초영작2에서 설렁설렁한 만큼 영문법특강에서는 열성적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중간고사 이후 성적 문의 메일을 넣고 답장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 '문의한 영문법특강 성적은 34점 (40점 만점)입니다. 평균은 25점 정도이니 기말에도 좋은 결과 꼭 얻길 바랍니다.' 1학기 때 A+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했던 마음이 메일 한통에 사르르 풀렸다.

교수님의 답장을 기점으로 초영작2도 다시 성실하게 참여했고 결국 심화영어를 포함하여 2학기 전공과목 모두 A+를 받았다. 이제 2학년부터는 영문학만 차근차근 공부하면 될 터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겨울방학을 맞아 새로 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다. 알고 보니 편의점이 우리대학 외국인교직원 숙소 근처였다. 더 이상 안 볼 줄 알았던 초영작 교수님을 포함한 많은 원어민 교수님들이 편의점에 들렀고, 교수님들은 내가 우리대학 영문과 학생임을 알고 나자 영어

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몇 학년이야? 아르바이트 힘들진 않아? 여기서 몇 시간 일 해?” 주고받는 스몰토크 내내 영어울렁증이 도져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는 0개 국어예요. 제발 그냥 물건만 사고 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 지금 사귀는 미국인 남자친구랑 결혼할거야. 조만간 집에 데려갈 거니까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영문과잖아.” 나를 둘러싼 환경은 방학만큼은 영어와 이별하고 싶었던 내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나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만 했다. 언제까지고 외국인 교수님들이 우리 편의점에 들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실제로 스몰토크 이외에도 맥주를 더 꺼내달라거나 화장실 열쇠를 빌려달라는 등의 업무적인 요청도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종강 전 우리대학 국제기숙사 사생회에 합격한 사실도 한몫했다.

평일에는 우리대학 도서관에서 근로하며 틈틈이 400번대 영어회화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공부한 내용을 편의점에서 실제로 써먹었다. 교수님들께 먼저 영어로 말을 걸고 스몰토크를 건넸다. 다시금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고 지금 나는 공짜 영어회화 과외 중이라는 암시를 걸었다. 그러나 이대로는 뭔가 부족했다. ‘개강 후에도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순 없을까? 난 동기들에 비해 영문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위와 같은 걱정은 다음 학기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학년 1학기, 나는 영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외협력처 주관 English Speaking Club에 참여했다. 또한 마음 맞는 동기들과 팀을 꾸려 교수학습센터 주관 러닝투게더를 신청했다. 러닝투게더에는 ITT<sup>2)</sup> 대비 팀으로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하여 지원금을 받고 동기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학습용으로 만든 밴드와 단체 채팅방에서 영어통번역은 물론 전공수업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1학년 때 영문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발생한, 부족했던 지식을 채울 수 있었다.

English Speaking Club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다수는 영어에 대한 학습의욕이 강했고 자기계발에도 능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정보, 교내외활동에 대한 후기, 공무원 합격수기 등을 공유하며 자극받았다. 그 중 한 학생은 나에게 대외협력처 주관 International Buddies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했다. 학기 중에는 교환학생, 방학 중에는 어학연수생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가 국제기숙사에 거주하니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마침 기숙사 같은 층에 거주하는 우즈벡 출신 유학생 언니도 내게 이 프로그램을 권유했기에 나는 다가오는 Discover Korea at Duksung 버디에 지원했고 합격했다.

방학 동안 내게 배정된 버디는 태국인이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으면 영어원어민으로 착각할 만큼의 영어고수였다. 내 버디는 마찬가지로 Discover Korea를 신청한 영

---

2) English 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국인과 룸메이트가 되었다. 둘은 룸메이트이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나 역시 두 사람과 함께 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만난 원어민들은 -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언니 남자친구는 - 비원어민인 나를 무척이나 배려하며 말해줬다는 것을. 두 버디의 대화는 집중하고 들어도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구어체, 생략 표현이 난무했고 말도 빨랐다. 근근이 알아듣는 것만 대답하는 사이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다. 그동안 영어실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고 내가 영어영문학 전공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영어공부에 자극받는 나를 상상했었는데 실상은 처참했다. 그렇게 혼자 우울해하다가 뜻밖의 전환을 맞이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루 종일 버디들과 놀러 다녀 녹진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에 돌아온 날인 동시에 1학기 최종석차 발표일이었다. 아무 기대 없이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다. 수석이었다. 어려워했던 영어발달사1을 제외하고 모두 A+이었다.

바닥 치던 자존감이 슬그머니 치료되고 영어영문학에 대한 애정이 다시금 샘솟았다. 그동안 영어영문학도로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영문학 입문서적을 반복해서 읽은 일, 도서관 DB를 통해 교수님들의 논문을 찾아본 일, 동기들과 에세이에 관해 토론한 일, 좋은 교수님들의 비평적 가르침을 곱씹으며 시야를 넓혔던 일 등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꾸준히 기여했다. 전공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나라는 인간상을 현재진행형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금껏 꾸준히 잘해왔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영어 좀 안 들리면 어때. 문학작품 잘 읽고 내 생각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자 스트레스가 다소 해소되었다. 다행히 프로그램 막바지가 되자 슬슬 귀가 뚫리고 입이 트였다. 태국인 버디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비원어민에 대한 희망적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치앙라이로, 영국인 버디는 내 귀에 영국영어를 뚫어주고 버밍엄으로 돌아갔다. 버디 경험을 발판삼아 나는 2학년 2학기인 지금도 ESC와 International Buddies에 2학기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문학도라면 세미나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4학년 소수인원 과목인 영미문화론도 수강중이다.

영미문화론 수업에 따르면 영국의 문화이론가 Raymond Williams는 Culture를 3가지 정의로 설명한다. 그 중 하나는 교양으로, 내가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또는 상태이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어와 문학으로 세계를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여전히 내가 어떤 영문학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앞으로 영어영문학 공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영문도 모르고 입학했지만 졸업 즈음에는 영문을 알길 바란다.

## < 우수상 >

### 여성에게는 언어가 필요하다

부제: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읽고

심리학과 20190566 강수민

이 책에는 아홉 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저자인 솔닛은 여성의 언어,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언어에 주목한다. 솔닛은 여성을 통제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근간이 언어에 있다고 서술한다. 언어로 가하는 여성 혐오를 바로잡아야 하고, 여성에게 발언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솔닛은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진중하게,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낸다. 여성 혐오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현상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 책은 페미니즘의 행보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해 여성들을 격려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솔닛은 '맨스플레인'—솔닛이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을 당한 일화로 서두를 연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맹신하고 여성을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를,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편견이며 여성을 침묵시킨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적이다. 여성에게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참여할 권리, 경청과 존중이 필요하다. 솔닛은 사회가 여성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억압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통제와 억압은 '맨스플레인'과 아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맨스플레인'을 단순히 멍청하고 우스운 발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맨스플레인'과 여성 차별, 폭력, 살해는 모두 동일한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여성을 가르치려 드는가. 왜 여성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성 차별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고, 여성의 특질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범죄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여성을 침묵시키려 드는가. 왜 여성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가. 여성에게는 왜 언어가 필요한가. 솔닛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데 집중하는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솔닛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과거에 '아내 구타'로 일컬어졌고,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 부부 강간, 강간문화,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이름이 없었다. 현상을 일컫는 말이 없으면 그를 문제 삼을 수도 없다. 사람들은 마치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가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만 같다.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정신병, 중독성

물질 섭취, 인종 차별,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설명하려 들지만, 여성 혐오가 그 기저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있더라도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며 묵인되기 일쑤이다. 솔닛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제일 최근에 등장한 신선한 설명은 납중독이 미국인 폭력성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가설인데, 다만 두 성이 모두 납에 노출되는데 어째서 한쪽 성이 대부분의 폭력을 저지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폭력의 유행병은 늘 젠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 문제에 대해 서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용어로 풀어내야 마땅하다. 용어는 현상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언어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렇기에 여성에게는 자신이 겪어온 차별을 고발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여성 혐오가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통제와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는 형태이기도 하고, 폭력과 살해 혹은 위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다음은 존재가 사라진, 타자화된, 그리고 폭력과 살해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해 언급해보겠다.

여성은 오랫동안 타자화 되고,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왔다. 여성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교묘하고 영악하니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이다. 솔닛이 언급한 <카산드라 이야기>는 이 현상을 대표하는 것 같다. 카산드라는 예언가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폴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카산드라는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은 몇 번이나 마을 주민들을 대동할 수 있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중세의 여성들은 왜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사회는 남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잠재적 피해자가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여성이 늦은 밤에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니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성범죄의 타깃이 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식이다. 이는 여성의 행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결과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했다. 솔닛이 말한 것처럼, 강간은 여성 인구 전체가 남성 인구 전체에 종속된 위치에 머물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모든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여성은 성범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성은 특히 몸의 권리를 주장할 때 신뢰를 잃고 부조리하며 히스테릭하다는 누명을 쓰는 것 같다. 성폭행을 고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려운 일이며, 성폭행 무고 사건 판정이 아주 드문 일인 데 반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무고죄를 언급하고 피해자를 의심한다. '미투 운동'이 왜 그렇게 뜨거웠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발언할 기회가 필요했다.

여성 차별을 논하자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빼놓을 수 없다. 솔닛은 현 배우자, 혹은 옛 배우자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의 누적수가 9.11 사건 희생자와 그에 뒤이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많은데도 이런 종류의 테러에 대해 누구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세상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이 살아남는 데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지 안타까워한다. 이런 종류의 폭력은 권위주의적이다. 폭력은 내게 상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은 자신에게 여성을 재단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폭력은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 또 하나의 주범이다. 솔닛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여태껏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은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상을 제시해왔다. 그 결과 현재의 '남성성'은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하락해왔다. 나는 이 두 현상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닛은 사회가 규정한 '남성성'은 어떤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남성다움을 상상하며, 남성의 어떤 특질을 칭송하고 장려하는지, 소년들에게 폭력이 전수되는 방식은 또 어떤지 의문을 제기한다. '남성성'은 거칠고 대담한 것이어서 남성의 일탈 행위는 비교적 경시되고 쉽게 용서된다. 그에 비해 여성의 행동에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진다. 여성은 웃지 않았다고, 친절하지 않다고 질타 당한다. 그렇다면 나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성의 범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결국 학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배태한 현상은 아닐까.

같은 맥락에서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에 대해 언급할 때, 남성들은 자신도 부당함을 겪었다며 '맨박스'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남성에게 씌워진 사회적 편견, 즉 고정관념을 일컫는 단어이다. 대표적으로 '남성은 울면 안 된다', '남성은 강인해야 한다'는 통념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모든 차별이 전통적 성 고정관념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면 이른바 '맨박스'는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 누구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행한 여아 낙태는 결국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다.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면,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스트가 남성의 힘과 권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권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짓밟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솔닛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며, 그렇기에 이 전쟁은 무의미하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때 모두가 인간다울 수 있다.

나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그러나 나에게도 회의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피해망상이라는 주장에 내가 비약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고민한 적이 있었고, 여성들의 모든 노력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제와 생각하건대 그 또한 여성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이자 여성에 대한 통제였다. 솔닛은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지 않았음을 실패로 볼 수 없으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여성들을 다독인다. 방해와 역행, 작은 실패들, 방향이 있겠지만 여성들은 통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성이 온전하고 자유롭게 존재하여, 남성의 타자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한 치 의심 없이 전진할 것이다. 과거의 나처럼 회의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모든 여성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 < 우수상 >

### 전교 꼴등의 인생 유랑기

중어중문학과 20160873 김나연

지난 학기 중국 베이징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에 중국인 친구들로부터 작은 웃음을 산 적이 있다. 한여름에 숲길을 걷다가 다 같이 모기에 물렸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중국인 친구 한 명이 의연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노란색 모기 연고를 꺼냈다. 연고 뚜껑에 쓰여 있는 중국어를 얼핏 보니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글자여서, 나는 그 연고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요우차오칭(油草青)'이라고 읽었다. 갑자기 친구들 넷이서 동시에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 연고의 이름은 특이하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여 있어서, 칭차오요우(青草油)라고 읽어야 했던 것이다. 고작 4개월 중국에 머무른 유학생이 그것을 알리 만무했으니, 나도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중국의 어느 약국에서 약 이름을 거꾸로 말해 잘못된 약을 사버렸다면, 나는 그 약을 먹고 중국 대륙 어딘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살기 위해 약을 먹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인생에는 예측 불가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고등학교 때 나는 문과에 소속된 학생이었지만 뜻밖에도 덕성여대의 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화학과 친구들이 내게 문과생인데 어떻게 화학과에 들어왔냐고 묻자, 나는 교차지원으로 이과 쪽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화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반응은 신기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섞인 미쳤냐는 소리였다. 그래도 나는 새롭게 시작될 나의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1000 페이지 가량의 일반화학 전공책을 왼쪽 겨드랑이에 낀 채 학교를 돌아다녔다. 팔은 점점 저려왔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대학교 1학년,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기념비적인 시기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 밥 한 끼조차 함께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강제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임신을 할 뻔했다. 만에 하나 새 생명이 탄생해버렸다면 그것은 사랑의 산물인가 치욕의 산물인가? 20살 여름방학의 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고,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어느새 나는 저 깊고 어두운 내면의 바닥으로 침몰해있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면 90세 할머니로 변해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찌 되었든 각종 풍파를 겪고 백 세를 바라보는 때에 이르렀을 테니, 앞으로의 인생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는 정해진 일만 남았으리라. 순식간에 여름

방학은 끝나버렸고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의 의미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 대학에는 그저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 몰래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육체의 고통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보려 했다. 부모님께서 내가 등록금을 내놓고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내게 이유를 물으시자 나는 그저 화학과 공부가 맞지 않다고 했다.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서 집에는 한동안 냉기만 감돌았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보름 넘게 인생 첫 가출을 했다. 2016년 12월 7일 나는 서둘러 짐을 싸고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행복을 찾아서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지만 행복은 잠시 뿐이었고, 뒤이어 우리 집 우편함으로 날아온 것은 1학년 2학기의 올 F 성적표였다. F 6개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촘촘히 나열된 내 성적표는 정말이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관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처음 해본 전교 꼴등이었던 터라 착잡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쾌감도 들었다. 그 쾌감은 뒤에서 일등을 했으니 더 이상 학교생활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었다. 자퇴를 할까 하다가 휴학을 걸어놓고 취업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졸의 신분이다 대학 생활도 1년을 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한 학기 만에 휴학을 마치고 2학년 1학기에 복학했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섯 과목밖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나는 최대한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들을 신청해보았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어어법 수업이었다. 모든 언어의 기초는 문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법 과목이 중문과의 가장 기초단계 수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나의 크나큰 오산이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중국어로 예문을 불러주시기만 하면 학생들은 고민 없이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화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 이미 두 과목은 F였던 터라 나머지 세 과목마저 포기해버리면 정말 자퇴를 해야 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11월 어느 날 중국어어법 교수님께서 반 학생들 전체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항상 수업시간에 맨 뒤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즐기만 했기 때문에 교수님을 뵈면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상담을 피할 수도 없었다.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전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상담 날 이틀 뒤가 바로 전과 신청 마감일이었다. 나는 전체 평점이 1점대인 학생은 가망이 없을 거라며 합리적 의심을 했지만, 이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었기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 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학기를 마무리했고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아 나는 두 번째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대신 뜻밖에도 중어중문학과로 전과에 성공했다는 통지도 받았다. 전과를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새롭게 마주한 교수님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었다. 사실 학원에 다니면서 중국어 자격증만 따도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 중문과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자라는 문자의 기원이나 중국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을 탐구하고 이러한 학문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이 시기가 아니면 쉽게 얻을 수 없는 특혜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후로 수업시간에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콧구멍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랫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공책에서 이렇게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매일같이 지하철을 두 번 환승해서 학교를 갈 때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나는 틈틈이 수업 내용을 복습했다. 물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고통에 중독되자 비로소 대중교통에서의 공부는 내 일상이 되었다. 나는 전과를 하고 바로 중문과에서 9등을 하게 되어 장학금을 받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뜻하지 않게 23학점으로 차석을 했다. 문득 그동안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을 중국 현지에서 몸소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곧바로 한 학기 어학연수를 떠났고, 16개의 도시를 여행하며 중국의 생활상을 피부로 느꼈다. 중국에서 조금은 더럽고 비좁은 침대칸 기차를 내 방처럼 드나들었던 나의 대담함은 아마도 대학교 1학년 때 유럽으로 가출을 하며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에서 온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니 세상에 이유 없는 경험은 없다.

얼마 전에 중국인 작가 왕안이(王安忆)의 장편소설 『장한가』를 읽었다. 1929년생 상하이에서 태어난 여인 왕치야오(王琦瑶)의 일생이 소설 속에 아주 치밀하고 긴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어서 나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왕치야오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으나, 그러한 모습이 그녀를 불야성을 이루는 상하이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시켰다. 그녀의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노련미는 종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능숙할 것만 같은 그녀 또한 사람이었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나약한 감정을 내비추기도 했다. 나는 언제쯤 인생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에게 우문을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다한 상태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극과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비로소 성숙해져 갈 수 있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은 보통 진실된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는가. 작가 왕안지도 세상 여자들이 한번쯤 해 보았을 말 못할 고민들을 소설로써 풀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약간의 동질감도 느껴졌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작가 왕안지와 주인공 왕치야오가 내게 흘린 여운을 따라 곧바로 상하이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앞으로도 끝없이 떠돌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려 한다.



## < 우수상 >

### 3의 굴레, 삶의 굴레

법학과 20190464 김혜민

우리에게 3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있어 3은 완전한 숫자였다. 가위바위보는 무조건 삼세판, 엄마가 날 혼낼 때도 “셋 셀 때 까지 나와!” , 달리기 전에는 “셋, 둘, 하나!”, 친구들과 응원 구호를 외칠 때도 “셋, 둘, 하나 화이팅!”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3번의 기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 글은 내가 삼세판의 벽을 깨부순 이야기다.

1997년 태어난 나는 돌잔치를 할 때 쯤 치아가 거의 다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말이 굉장히 빨리 트였다. 그 때의 어린이는 말만 잘해도 천재 소리를 듣던 시기라서 어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내가 커서 하버드를 갈 거라며 유치원도 가지 않은 아이에게 큰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래보다 언어 능력이 좋다고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초등학교까이다. 스스로도 천재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음’.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 마음 깊숙이 박혀서 눈물을 흘렸다.

교복을 입기 시작하고 노력 없이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되자 내 천재성은 껍데기가 벗겨졌다. 이미 어른들 사이에서 나는 ‘어릴 때 공부잘하던 애가 나중엔 꼴통이더라’의 주인공이 되어있었다. 그나마 남은 언어적 재능은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만 반짝 빛을 낼 뿐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약간의 노력만을 더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 잘 하며 지냈다. 매 순간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돌아보니 내가 유일하게 노력했던 순간은 축제 사회자가 되서 대본을 만들고 연습했던 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력이 없던 과정의 결과는 뻔했다. 항상 운으로만 비벼왔던 성적은 수능날 가감 없이 속살을 드러냈고 나는 바로 재수생이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고 학교 다니면서는 나름 중간 이상은 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같은 길을 걷다가 처음으로 탈선 한 기분이었다. 반항의 의미에서 탈선이 아니라 나 혼자 노선을 벗어난 그 느낌. 그래도 다들 ‘재수는 필수’라는 말을 하니까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척 하던 악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다. 힘없는 나의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고 수능이 코 앞에 다가와도 타고난 내 능력이 어떻게든 길을 터주겠지 하며 불안감을 즐기고 있었다. 뻔하겠지만 나는 운이 없다. 타고난 내 능력은 이미 수년 전 유통기한이 끝났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재수생활이 끝나고 나는 첫번째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적어도 인서울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 없던 학교에 추가 합격으로 입학했다. 뒤에서 2번째로 들어갔으면 합격을 기뻐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학교와 어울리지 않아, 내 능력으로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했어'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격지심 가득한 21살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대학생활은 객기 넘치는 하루의 연속이었다. 3수까지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1학기를 대차게 놀았고 놀면서도 3수는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다.

1학기 종강 후 나는 포부 넘치게 주변 사람들에게 삼반수를 할 거라고 당당히 말하며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속세와 연을 끊을 것이라고 엄포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약속이라 다짐하며 만났던 6월의 약속은 7월, 8월, 9월까지 연장되어 버렸다. 정신 차려보니 수능까지 5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의 나는 나름 수능에서 경험치가 있어서 50일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50일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고 그 50일 마저도 노력하지 않았기에 수능 전날 나는 마음속으로 3번째 시험을 포기했다. 시험 전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된 것이다. 일주일이 추가로 생겼을 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채

나는 수험장으로 향했다.

3번째 시험이 끝나고 마음 한 켠에 드는 '한 번 더...?'의 욕심은 이전과 다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친구들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나의 위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련이 너무 남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색창에 '사반수', '4수', '23살에 대학' 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내가 하려는 이 도전이 제발 흔한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들도 나와 비슷했다. 3번째 도전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며 도전했지만 4번의 도전은 흔치 않았기에 4번째의 경험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 대학교 생활은 나름대로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다. 학교에 정을 붙이려고 했고 동아리에도 가입하며 이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했다. 이 학교에서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과에서 차석이 되어 성적장학금도 받아보고 내 발표실력을 내세울 기회가 오기도 했다. 정신없이 1학기를 보내고 나니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덕성여대에 지원했었다. 모든 사람이 '합격안정'이라고

얘기하길래 당연히 덕성여대 18학번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합격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미 예비 덕성인이 되어 차미리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학교축제는 어떠한지, 내가 입게 될 과장과 학점은 무엇일지 매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결과는 완전 불합격이었고 두번째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덕성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4번째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일단 주변에서 내가 가장 수능을 많이 본 상태였는데 여기서 +1을 할 용기가 없었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가 두려웠다. 또 휴학을 해야되는데 나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3번의 기회가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4번째의 기회로 넘어가는 것은 22년 동안 쌓인 삼세판의 벽을 깨부수는 일이었다. 나는 끝내 '3'의 벽을 부숴냈다. 내 행동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날 움직이게 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다.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안정되나? 다들 맨날 셋까지 세고 말잖아 - 드라마 설록 중”

드라마 속 상황은 내 상황과 전혀 달랐지만, 나한테는 너무나도 내 상황에 들어맞는 말이었다. 도대체 3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내 도전을 막는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했고 나는 4번째 도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학기 개강날 나는 휴학을 다짐했고 힘들게 마음먹은 도전인만큼 용기 있게 휴학을 신청했다. 학교 가는 척 독서실로 등교했고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다. 가족들도 몰랐고 오직 우리집 막내 강아지만 이 누나가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70여일 동안 정말 성실하게 행동했다.

입시에 필요한 비용을 나 혼자 충당한 적이 처음이라 주말 알바를 그만둘 수도 없었고 독서실 비용이 이렇게 비싼지도 처음 알았다. 그렇게 수능 전날이 되었고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아무도 나에게 거는 기대가 없었으니까 긴장이 되지 않았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올 수 있었다. 처음으로 '이 과목은 다 맞았다' 라고 느꼈다. 시험이 끝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시험보는 걸 알고 있던 친구 두 명과 신나게 저녁을 먹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다.

다음날 “혜민아 너 수능본 거 왜 말 안했어” 라며 엄마가 날 깨웠다. 이때만 해도 연기에 심취해있던 때라서 시험 안봤다고 열심히 둘러댔다. 하지만 거짓말도 유통기한이 있나 보다. 이제 시험도 다 끝난 마당에 더 이상 거짓말하기 지치기도 했고 엄마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거짓말이 불가능했다. 논술고사를 신청한 학교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권장해달라는 문자가 엄마에게까지 발송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 11월 25일 나는 드디어 덕성에 도착했다. 1년 동안 이 캠퍼스를

거니는 꿈을 꾸며 지냈던 내가 드디어 덕성에 발을 디딘 것이다. 단지 덕성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던 나는 기분 좋게 논술고사를 마쳤고 12월 14일 덕성에 정식으로 합격하였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알바하면서 합격발표를 확인했는데 함성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금요일이었다. 합격한 이후 부모님에게 내 휴학 사실을 알렸고 아빠는 그제서야 내가 수능을 응시한 사실과 합격 소식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정말 행복한 기억이다. 가끔 합격한 날 찍었던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 '3'의 벽을 깨고 도전한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감을 얻는다. 두려웠고 선례가 없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길을 개척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나는 이렇게 매번 도전할 것이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멈출 수 있던 일을 한번 더 도전 했고, 끝내 원했던 결과를 받아 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야 하는 복잡한 이유를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게 내가 그 목표를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집중한 것이 내 도전의 원동력이었다. 나는 이제 4번의 틀에 갇혔을지도 모른다. 5번을 도전해야 열리는 문에서 4번까지 도전하고 포기를 고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고민 끝에 5번째 도전을 할 거라고 믿는다. 두드리고 두드려서 마주한 결과가 예상보다 비루할지라도 내 도전은 항상 빛날 것이기에.

## < 우수상 >

영화가 군주론을 만났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다.

- 마키아벨리 저서의 군주론을 읽고,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를 보고

IT미디어학과 20141111 이다솜

### 1. 서론

군주론을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군주론에 대한 일반적인 평은 인간이란 성악설을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군주론에 나타난 인간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단순한 존재로 보이기도 했고, 손익을 따지며 행동하는 존재로 보이기도 했으며,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이기도 했다. 인간이란 선하다, 악하다의 흑백논리가 아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라고 느껴졌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어떠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가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했는지 궁금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다.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나열해 본 뒤 비슷해 보이는 속성끼리 이름을 붙여서 분리하고 싶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인간상, 실수투성이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만을 반복하는 인간상,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상이 세 가지의 분류이다. 우연한 기회로 분류된 특징을 명확하게 반영한 이와이 순지 감독의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를 보게 되었고, 분류한 세 가지 특징에 따라 등장인물에 맞추어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가정한 인간상이 부합한다면 영화 속의 다른 인물들이 어떠한 태도로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지 조명하였다.

각 특성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욕망하는 인간'이라고 상정하였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정의했다. 욕망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며, 각 인간상은 각자의 다른 욕망이 있으리라 가정했다. 영화에 나타난 세 등장인물이 마키아벨리가 서술한 인간상에서 어떻게 분류되었고 부합하는지 기술하였다. 각 인물이 어떤 욕망이 있는지 서술한 뒤, 그것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각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2. 본론

### 1) 나나미 (립반윙클의 신부)



나나미의 욕망은 첫 번째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운 마음을 쉬운 방법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이 된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나나미는 끊임없이 불안했다. 결혼식 때 부모님만 두 분만 오시기에 업체를 통해 대리 가족을 구매할 정도로 곁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조차 없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당한 부탁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어 자신을 떠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위기에 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소통하던 가상의 친구 아무로 뿐이라는 상황이 안타깝다.

마음을 가벼운 방법으로 채우려는 나나미의 또 다른 모습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 인터넷 쇼핑을 하듯 너무나 쉽게 온라인 만남을 통해 결혼할 사람을 선택했다.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며 도움받지 못하는 나나미는 결국 아무로가 설치해 놓은 덫에 빠져 곤경에 처한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무로에게 확인을 부탁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속임수에 빠져서 파혼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아무로의 계약에 빠져 립반윙클과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립반윙클에게 소개된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두 번째 욕망은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는 아무로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로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믿는다.

나나미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합리적이지 않은, 실수투성이에 빈틈이 보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상과 부합한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sup>1)</sup>라는 구절을 보면, 나나미는 어떤 상황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의도적으로 순진한 나나미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위험에

---

1) 109쪽

빠뜨리고, 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아무로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인간이란 신중함이 부족하므로, 제가 앞에서 소모성 열병을 두고 말한 것처럼, 일견 매력 있게 보이는 정책을, 그 속에 있는 독성을 깨닫지 못한 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초기 단계에 독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군주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2)</sup>라는 점으로 보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나미의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시민이건 신민이건 평소에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데에 익숙해 있어서, 역경의 시기에 군주에게 복종하는 데에 익숙해 있어서, 역경의 시기에 군주에게 복종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군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sup>3)</sup>에서 볼 수 있다. 위기의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아무로에게 연락하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나나미가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2) 아무로



아무로의 욕망은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아무 것이든 다 합니다.”라는 말이 그를 대표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인다. 순진하고 의심 없는 나나미를 속여서 파혼하게 만들고, 돈이 없는 상황인 나나미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가장하고 마시로에게 소개한다. 마시로에게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증개하여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군주론에서 제시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상과 부합한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곧 영광과 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한 사람은 신중하게 다른 한 사람은 과감하게, 한 사람은 난폭하게 다른 한 사람은 교활하게...”<sup>4)</sup>라는 부분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필연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강요받지 않는 한, 군주에게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sup>5)</sup>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sup>6)</sup> “인간이란 은

2) 102쪽

3) 76쪽

4) 171쪽

5) 165쪽

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sup>7)</sup> 라는 부분에서처럼, 그는 선한 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른다.

“왜냐하면 용병이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sup>8)</sup>는 대목처럼, 그는 신의가 없으며 신이 없는 듯이 행동한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행동에도 망설임이 없다. 또한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완벽히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sup>9)</sup>라는 구절처럼, 목표로 설정한 상대에게 호의를 가장하여 누구보다 다정하게 대해주는 듯 행동하지만, 불쌍한 나나미는 그가 호의를 둔갑해서 한 행동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반면에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하며 그래야 그 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sup>10)</sup>처럼, 그의 행동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마시로 (립반윙클)



마시로의 욕망은 친밀한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말기 암이었던 마시로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나나미를 보며 “이 눈물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죽음이 눈앞에 있기에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마시로는 독이 있는 해파리와 푸른 고리 문어, 전갈 등을 키우며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 그녀에게 행복은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기에 이를 돈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거래라고 믿는다면 행복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이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죽음 앞에서도 유일하게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인 나나미를 통해 마시로는 자유로워진다.

마시로는 의지를 갖추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는 “모든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특히 직접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는 군주의 행동에 관해서 보통 인간들은 결과에만 주목합니다.”와 “왜냐하면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sup>11)</sup>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즉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

6) 119쪽

7) 119쪽

8) 88쪽

9) 24쪽

10) 69쪽

11) 10쪽



으면 기꺼이 지배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며,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지배자에게 무기를 들고 봉기하게 됩니다.”<sup>12)</sup>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본업인 배우 일을 계속하고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시로의 모습과 같다.

### 3. 결론

“영토확장의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욕구이며...”<sup>13)</sup>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른 욕망을 가지며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 보았다.

나나미는 누구보다 주체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용병의 사용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게 됐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의지한 것이 그녀의 상황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그러나 신은 우리 몫의 자유의지와 영광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 역시 자기 몫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sup>14)</sup>처럼, 나나미는 자신이 어려움에 부닥쳐있을 때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건 이러한 책략은 당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런 방어책은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취약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하에 있고 당신의 역량에 기초한 방어책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과 말이다.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을 행동하는 아무로는 “자신이 미움을 받거나 경멸을 받는 일은 무엇이든지 삼가야 한다.”,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sup>15)</sup>“왜냐하면,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sup>16)</sup>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군주론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상황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누군가에게 거래를 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마시로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너무

---

12) 10쪽

13) 31쪽

14) 177쪽

15) 128쪽

16) 10쪽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자기기만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sup>17)</sup>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아무리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웠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약점입니다.”<sup>18)</sup>처럼, 죽음 앞에서 친밀해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 원래 함께 지내던 가족, 고향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을 더 오래 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인간상의 모습으로 표현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인간의 다면적인 모습을 재미나게 보여주었다.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를 통해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같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화와 주제인데도 인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이 담긴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인간이란 자신의 모습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

17) 162쪽

18) 168쪽

## < 우수상 >

###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

영어영문학과 20180304 채수빈

‘불안’이란 감정은 ‘슬픔’보다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애매모호함 속에 있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기 일쑤다. 내가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그 막연함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나의 불안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존감, 시간 관리, 20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 전공을 택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해리포터> 시리즈였다. 책에서 ‘디멘터’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신입생 때의 나는 그야말로 디멘터에게 잠식당한 상태였다. 디멘터는 사람들의 행복을 빨아먹고 사는 생명체로, 작가는 이것이 자신의 우울증을 표현한 것이라 인터뷰한 바 있다.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느낀 불안은 자존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건 내 3년 동안의 독학 재수와 관련이 있다. 수험생 생활을 드디어 마쳤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 심장은 두근두근 무서운 속도로 뛰었다. 그렇게 겁에 질린 상태로 나는 첫 수업에 들어갔다. 신입생이 되어 맨 처음 들어간 수업은 ‘초급영작문회화’로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의 전공 과목이다. 다양한 학과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인데, 영어 회화 수업이다 보니 저절로 서로에 대한 장벽이 낮춰지면서 웃음이 많아지게 된다. 초급영작문회화는 처음엔 손을 벌벌 떨며 겨우 목소리를 꺼내던 내가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게 한, 아주 고마운 수업이다. 그래서 나는 영문과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이 수업을 종종 추천한다.

나는 내 전공과 잘 맞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습 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자 다음으로 느낀 불안은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정해진 등교 시간 없이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생활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했고, 특히 통학 시간이 등하교를 합쳐서 세 시간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었다. 결국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허무하게 흘려보냈다는 생각에 쉽게 우울해졌다. 그래서 내가 찾은 대안은 가방에 쉽게 지닐 수 있는 E-book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웬만한 도서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 E-book 어플을 설치해서 월

간 회원권을 끊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름의 독서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먼저 E-book으로는 최신 베스트셀러를 보며 최근 이슈와 트렌드를 살피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내 전공과 많이 관련된 고전 도서와 영문학 도서를 2주일에 한 권씩 빌리기로 했다. 또한 페미니즘 독서 소모임에 가입하여 페미니즘 영화와 도서를 격주로 돌아가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book 외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기로 했고, 그 대신 서점 나들이를 자주 하는 등 종이를 자주 만지려 노력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수업 시간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쉽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편이지만, 길어진 방학이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종강한 후 풀어지는 때를 자칫하다가 개강 직전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방학을 중점으로 활동하는 교내 영자신문사에 가입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영어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했던 초급영작문회화 시간처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다.

자존감과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나름의 노하우를 찾아가고 있지만, 점점 깊어지는 불안감이 있다. 그건 바로 2019년의 한국에서 여자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고, 여대에 있을 때와 너무 다른 현실에 놀랄 때가 아직도 많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는 늘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항상 20대의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이미지, 위험한 밤길,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 대한 조롱은 나에 대한 조롱으로도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불안'이 의인화되어 내게 말을 걸고 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면? 즉, 디멘터 같은 존재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걸까? '불안'은 아마 내가 늘 망설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따금씩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한 딸처럼 보이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호감으로 비치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내가 신입생일 때 베스트셀러였던 <82년생 김지영>도 그런 의미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책일 것이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자존감이건, 시간 관리이건, 여성성이건, 나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대학생살을 하며 알게 되었다. 불안함은 언제나 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함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향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 하버드 대학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불안함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는 그 자체로 실패가 된다는 뜻이다.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 이면에는 항상 불안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남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